

NGO 보금자리 '우리함께 회관' 30일 개관

재가연대·우리는선우 공동 마련

불교 NGO 단체들이 새롭게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가 공동으로 서울 장충동에 마련한 대지 200평 지하 1층 지하 6층 연면적 6376평의 규모의 '우리함께 회관'이 두 단체는 최근 빌딩 매입을 완료하고 10월 30일 오후 3시 회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함께 회관'에는 2006년 9월

까지 지하 1층 청소년 문화센터, 지상 1층 국제참여불교정보센터, 2층 경영정보교육센터, 3층 NGO네트워크센터, 4층 심성·리더십센터, 5층 생활수행센터, 6층 보리수 마당 등 시설들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이 완료되면 '우리함께 회관'은 △불교계 핵심인재 및 미래불교지도자 양성 △불교사회화와 건강 강화 △종교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 개발 △생활수행운동의 대중화 및 국제참여불교운동의 산실 △NGO 대

안과 교육운동의 활성화와 연대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우리함께 회관'을 명실상부한 참여불교 재가운동의 산실로 키우기 위한 자금 조성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 두 단체의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27억 6천여 만 원의 기금이 3단계에 걸쳐 마련된다. 1 단계에서는 내년 4월까지 총 16억 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2단계는 내년 말로 6억, 3단계는 2006년 12월 까지 일정이 잡혀있다.

개관을 맞아 재가연대 윤남진 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미래문명을 선도할 것이라는 가능성

에 대해 말하지만 누구도 그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코자 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함께 회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효림, 성관)는 NGO단체들을 후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보광사에 'NGO문화관'을 최근 개설했다.

'NGO문화관'은 NGO단체들의 각종 연수 및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찰체질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기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블런·해외명사 본지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본지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 10주년 특집호인 495호 마감 후에도 조선불교도연맹과 해외에서 축하 메시지가 잇따라 도착했다. 특히 10월 12일 달라이 라마 동야 시아 대표부 조베 대표가 직접 본사를 방문,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달라이라마 동야 대표부 조베 대표 본사 방문

티베트 '달라이라마 법왕' 동야 시아 대표부 조베 대표가 본지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베 대표가 본지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대불교'가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아낌없는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베 대표(오른쪽)와 본지 김광삼 사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

겨레 사랑 받는 신문으로

박태화(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우리는 창간 10돌을 맞이한 '현대불교'의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현대불교신문은 불법홍보와 불교의 현대화, 불교계 언론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10년간의 선행을 바



탕으로 민족의 화합과 협력, 조국통일에 적극 기여하는 불교계의 통일신문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불교신문이 평화로 지켜내며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참여적인 문제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겨레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앞날에 언제나 불음이 증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들의 의견 전달 앞장

루이스 랭가스터(美 CA 서부대 총장)



한국불교의 부흥은 오늘날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같은 관심과 이해는 현대불교와 같은 뉴스 미디어들이 주도해 온 것입니다.

창간 10년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현대불교'가 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해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사명감과 열정에 깊은 감명

로버트 버스웰(美 UCLA 불교학연구소장)



몇 차례 가졌던 만남을 통해서 '현대불교'의 사명감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불교'가 아시아계 중비 중인 불교 포털사이트 부디피아는 10년 전 '현대불교'가 그랬듯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인에게 불법 전파

아쇼크 자인 (인도 문헌학 마노할랄 출판사 대표)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인문을 선도하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도 출판계를 대표하는 본사가 제휴를 통해 '현대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하게 힘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美 불자들 상상 못할 일

수미 런던 (‘형바지를 입은 부처’ 저자)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매주, 혹은 매달 불교에 대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매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10년의 세월은 책임, 비전, 인내, 신념 등이 내포된 노력을 의미합니다. '현대불교'가 온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신문을 만들고 있음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불교매체 본보기 되길

아사오 호리베 (미국 중서부불교도연맹 대표)

미국 중서부 불자들을 대표해 현대불교와 한국의 불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오늘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불교'의 비전과 열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변신해 불교매체로서 좋은 본보기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발굴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문화재청, '긴급진단...' 주제

연간 발굴 조사가 1000여건에 달하고, 소요되는 비용만도 1000여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 하지만 장기적 안목 없이 마련된 관련 제도들은 이처럼 커버린 사업 분야를 통제·관리하는 데 무력할만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청장 유희준)은 10월 15일 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서순 국립부여박물관장은 "구제발굴이 폭증한 이 시점에서 발굴전문기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박물관은 유물 전시·보존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금식 한국토지공사 신도시

사업2차장은 사업시행자로서 겪는 고통을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 조사 수요와 조사기관의 불균형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의 왜곡현상, 부실한 지표조사로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 사업지구 지정 후 문화재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발굴비 원인지 부담의 불합리한 면을 부각시켰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이상길 경남대 교수는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구제발굴의 최대 조사기간을 정하는 한편, '발굴사' 자격증을 도입해 발굴조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것을 주장했다. 또 '발굴공사' 청설과 조사원의 준공무원화를 통해 발굴전문기관의 구조적인 틀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박익순 기자



사진제공=미주현대불교

한국불교 미주전법 40주년 기념법회

한국불교 미주전법 40주년 기념법회가 10월 3일 뉴욕 플라싱고등학교에서 봉행됐다(사진).

보스턴 문수사 도범 스님, 토론토 불광사 광욱 스님, LA 관음사 도안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 주지 스님과 신행단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신행단체 소개, 대회사, 조계종 총무원장 격려사 대독, 헌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미주전법은 서경호 스님이 1964

년 6월 도미,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에서 재학하며 포교활동을 펼친 것을 기점으로 하며, 현재는 130여 명 스님들이 100여 개의 사찰에 머무르며 포교하고 있다.

도범 스님은 대회사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수많은 종교가 활동하는 미국에서 한국불교 전법 40주년을 맞이한 것은 선배 스님들의 선각적인 발원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준비위 발족

70~80년대 불교계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이 펼쳐진다.

불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서동석)는 10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70, 80년대 불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종 사료와 자료를 수집, 보존해 객관적 연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시

키겠다"고 말했다.

11월 정식 발족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10월말 민주화운동 불교관련 실태조사 사업 △10월 30일 불교사회운동 관련자 천도재한 회대, 노일현, 김동수, 김동영, 박희정) △12월 개인, 단체별 소장자료 색인 정리 및 발굴 조사 참여자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국제종교평화회의 21~23일 서울서 개최

국제종교평화회의가 세계 12개국 종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1~23일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아시아 공동의 집-한반도의 평화'를 중심으로 '불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는 안보 논리보다 인간, 남북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지구촌총생회 대표 월주, 평불협 회장 방다, 정교회 지도부 사법륜 스님 등이 참석한다.

강유신 기자

마음·생명연구소 12차 국제학술회의

마음·생명연구소(Mind & Life Institute)가 매해 과학적 연구 성과를 불교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제12회 국제 컨퍼런스가 10월 18~22일 인도 다담살라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뇌 적응성(Neuroplasticity), 학습과 그 변형 과정을 좌우하는 뇌 신경의 '기질(基質)'에 대한 논의가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를 포함한 12명의 미국과 캐나다, 일본 뇌신경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강유신 기자

-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 대승마정수기 대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만추시절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불자 여러분들의 가내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합장 기원 드립니다.

금번 「대한불교종정협의회」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한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대승마정수기」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행사제목 : 경제회복을 위한 호국방생 부처님 10대 제자 사리친견 및 대승마정수기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48년(2004) 10월 26일(양력) 음력 9월 13일 화요일 12시 ~ 오후 4시까지
- 장 소 : 금강유원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옆)
- 전 화 : 02)756-1227(사무처) / 팩스 02)774-1487
- 주최·주관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 후 원 : 각 종단 및 단체, 교계 언론사

권 대승마정수기사(大乘摩頂授記師) 권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임원

- 명예도통정 석인왕 종정 (재)한국불교여래종)
- 부도통정 석무찰 종정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
- 대 통 정 석지산 종정 (한국불교정토종)
- 수석부통정 석정암 종정 (한국불교조계종)
- 부 통 정 석해철 종정 (한국불교원각종)
- 총 정 석가산 종정 (대한불교삼보조계종)
- 의 장 석의천 종정 (대한불교선화종)
- 수석부의장 석해지 종정 (대한불교해인종)
- 부 의 장 석덕산 종정 (대한불교천지종)
- 수 석 감 사 석천강 교령 ((사)용화불교)
- 감 사 석일강 종정 (대한신불교천우종)
- 이사 석청하 종정 ((사)대한불교법사종)
- 이사 석석봉 종정 (대한불교삼론종)
- 이사 석해봉 종정 ((사)대한불교해동종)
- 이사 석동원 종정 (대한불교연화종)
- 이사 석월인 종정 ((사)대한불교승가종)
- 이사 석법광 종정 (세계불교법륜종)
- 이사 석청원 종정 (대한불교불광종)
- 이사 석수선 종정 (대한불교법광종)
- 이사 석해륜 종정 ((사)한국국토불교조계종)
- 이사 석지일 종정 (한국불교대승법사종)

금강대승마정수기단 단장 대통정 석지산